

장애인의 디아코니아 세미나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13:30-15:30

장소 |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

주최 | 2016디아코니아 코리아 조직위원회

주관교회 | 은누리교회

인사말

하늘이 맑고 선선한 가을에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걸어온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는 많은 관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한국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제적 자립에 대해선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사회적 자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주제인 사회적 자립은 아직 그 개념이 모호하고 정립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져볼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립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삶의 양식과 궤적을 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자립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신학과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이라는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선교단체의 역할, 교회복지재단의 역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교회와 기독교사회복지 기관들이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며,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세란

일정표

1.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13:30-15:30
2. 장소 :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

시간	순서	내용
	좌장	오세란 교수(서울기독대학교)
13:30~14:00	주제발표 1	“장애신학과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 성경적 장애 이미지와 한국 장애인선교의 역사적 발자취를 중심으로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14:00~14:05		휴식
14:05~14:20	사례발표 1	“Strength in Weakness(SIW) 사역을 열어가며” - 조병성 단장(한국밀알선교단)
14:20~14:35	사례발표 2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위한 평생과정설계” - 유수진 상임이사(사회복지법인 성민)
14:35~14:50	사례발표 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교회의 역할 김선이 센터장(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14:50~15:05	사례발표 4	“장애인의 사회적자립과 방안. 그 안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과제” - 발달장애인의 예술공동체를 꿈꾸는 ‘틈사이로’를 중심으로 이정하 문화팀장(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5:05~15:10		휴식
15:10~15:20	종합토론	정지웅 교수(배재대학교)
15:20~15:30	질의응답	오세란 교수(서울기독대학교)

목차

주제발표 1	
“장애신학과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 성경적 장애 이미지와 한국 장애인선교의 역사적 발자취를 중심으로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1
사례발표 1	
“Strength in Weakness(SIW) 사역을 열어가며”	
- 조병성 단장(한국밀알선교단)	31
사례발표 2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위한 평생과정설계”	
- 유수진 상임이사(사회복지법인 성민)	37
사례발표 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교회의 역할 김선이 센터장(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45
사례발표 4	
“장애인의 사회적자립과 방안. 그 안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과제”	
- 발달장애인의 예술공동체를 꿈꾸는 ‘틈사이로’를 중심으로 이정하 문화팀장(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59
종합토론	
정지웅 교수(배재대학교)	61
질의응답	
오세란 교수(서울기독교대학교)	

장애신학과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 성경적 장애 이미지와 한국 장애인선교의 역사적 발자취를 중심으로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목 차

- I.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II. 장애신학과 성경적 장애관점
 - 1. 장애신학과 이미지
 - 2. 하나님의 형상과 장애 이미지에 담긴 사회적 자립
 - 3. 신약의 장애 이미지와 사회적 자립
- III. 한국 장애인선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의미
 - 1. 장애인선교의 시작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형성
 - 2. 장애인선교단체의 출현과 장애인선교 운동
 - 3. 장애인선교단체연합 운동의 성과
 - 4. 일반교회를 통한 장애인선교의 유형
 - 5. 새로운 장애인선교의 성공과 정착
- IV. 결론
- V. 참고문헌

I.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장애’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초래되는 어떤 비극적인 불행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휴먼서비스(Human Service) 영역에서 장애 개념은 ‘손상’이나 ‘상실’보다는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도전과 기회의 상황으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지향하고 있다(김종인·우주형·이준우, 2010).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자립은 주로 지속적인 직업 활동 가능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도 경제적 자립에 지나치게 치중되어왔다. 즉,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은 장애인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이준우·정지웅, 2014).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에서 발전한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들은 한국의 장애인들을 외형적으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끌어내기도 하였고,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등을 통해 비장애인과 같은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하였다(이준우, 2012). 이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깊숙이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성과 중심의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한국적 상황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개인의 능력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비장애인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들이는 몇 배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장애로 인하여 오는 ‘느림’, 체력과 건강의 한계, 물리적·사회적·제도적인 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근본적인 장벽들에 대해 개인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평가받게 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립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거나 복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준우·김성태, 2010).

과거 농경 시대나 가내수공업과 같은 소규모 산업에 기초했을 때는 그나마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도 일정 부분에서 역할을 맡아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장애는 노동력과 연관되어 평가되었고, 생산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들로 인해 시설로 격리되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가 규정한 자립의 범주와 수준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혔고, 이로 인해 현실 사회에서 장애인은 주류에서 탈락되기 일쑤였다.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시 귀결되며 장애인은 또 다시 자립과는 거리가 먼 소외와 종속의 의존적 삶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립의 수준을 경제적 조건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립되지 못한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종종 장애인들은 ‘없는 존재와 같이 취급’되고, 무시 받았으며 심지어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¹⁾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은 정말 불가능할까? 무엇이, 어떤 상태가 장애인의 자립일까? 가령 집에서 누워있어야만 하는 장애인의 ‘지금-여기’에서의 삶은 자립생활이 아닌가? 활동보조나 가족의 도움을 활용해 일정 부분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자립으로 볼 수 없는지 등과 같은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금 제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이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과거보다는 크게 개선되었다는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성찰해 보자.

장애인복지가 좋아졌다고? 제도와 정책이 발전했다고? 장애인이 원하는 자립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성찰도 없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회를 선구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교회

1) 잇을 만하면 터지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 유린 등의 문제들을 아직도 엄연한 현실로 접하고 있다

는 어떠한가? 교회가 사회의 가치관을 쫓아가거나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의 선교와 복지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실현하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교회는 바람직한 성경적 장애 개념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리하여 대 사회적으로 전파하는 매신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선교와 기독교적 관점의 장애인복지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며 이러한 선교적이며 복지적인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약함 또는 부적절함이나 손실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신학적 이해가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선교와 복지를 수행해 왔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장애인 사역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실현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 본 연구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연구 질문들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장애신학의 관점과 사회적 자립의 개념을 성경에서도 출하고, 둘째, 한국 장애인선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II. 장애신학과 성경적 장애관점

1. 장애신학과 이미지

왜 하필이면 ‘장애신학’²⁾인가? ‘장애신학’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실제로 장애인신학이라고 하면 장애인신학에서 신학적 대상은 장애인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치 않다. 가령 여성신학에서 여성은 상당한 포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흑인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장애의 범위와 정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신학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신학은 그 유형과 내용이 너무나도 세분화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신학적 기초와 원리를 도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김홍덕, 2010; 이준우, 2011).

뿐만 아니라 장애인신학이라는 개념으로는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신학은 성경 속 장애인의 이야기 또는 장애인 개인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반면 장애인신학은 ‘장애’를 주제로 삼아 펼쳐가는 하나님나라 이야기이다. 즉, 장애인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장애인신학은 하나님이 장애를 ‘비유(메타포: metaphor)’로 삼아 써내려 가는 하나님나라 이야기인 것이다(김홍덕, 2010).

2) 장애신학'과 '장애인신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김홍덕(2010)이 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장애신학』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pp. 33-44)를 참조하길 바란다. 김홍덕이 주장하는 장애신학의 핵심은 장애신학이 장애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역사서에서는 장애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암시해주는 비유로 쓰이기도 하고, 예언서에서는 장애인을 말하기보다는 장애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영적인 관계를 조명해 준다. 결국 성경은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애라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그 이미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신학은 장애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작업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나라와 그 나라 속에서 이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들(images)과 이야기들(narratives)에 의존한다. 이미지라는 상징적 언어는 풍성함과 다양함을 드러내 준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을 선지자적 상상력(Prophetic Imagination)을 발휘해서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향해 바라고 꿈꾸시는 의미를 찾아 가는 거룩한 일이 성경 해석인 것이다(박보경, 2008).

한편,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³⁾는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구현되며 그 결과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라고 했다. 성경은 모든 세상 가운데서 모든 세상을 위하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라는 것이다(Wright, 2006).

마이클 고헨(Michael Goheen)도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경은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다(Goheen, 2008). 성경의 각 부분은 '전체 이야기(Meta-narrative)'적인 관점⁴⁾에서 읽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 이야기'적인 관점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이다. '전체 이야기'적인 관점은 하나의 이야기로 전체적인 인간 역사의 의미와 운명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말하자면 매우 다양한 인간의 이야기들을 단일하고 포괄적인 하나의 이야기에 포함해서 그것들에 단일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정승현, 2012).

따라서 장애신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장애를 통해 펼쳐 가시는 하나님나라의 이미지들을 이해하는 성경적 관점인 것이다(이준우, 2014). 그런 면에서 장애인신학이 장애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장애신학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결국 장애신학은 '장애'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속성을 말해주고, 현재의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나라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장애신학은 장애를 통해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찰할 수 있게 해 준다. 반면 장애인신학은 장애인이라는 사람이 신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의 특정 내용이 곧바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김홍덕, 2010). 그 결과 교회는 장애인을 시혜적인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해석에 기초한 장애 개념의 정립은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3) 김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하나님나라 구축이 성경 이야기의 심장이며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그는 "성경 해석의 기본 틀이 하나님의 선교와 그것에 참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의 형성에 관해 말해 주는 이야기이다."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성경의 모든 본문은 이러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교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산물이며 하나님의 선교 증거인 것이다. 성경은 목적을 가지시고 그러한 목적을 우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인 것이다(Wright, 2006; 정옥배-한화룡 역, 2010).
4) Meta-narrative 관점의 한 예로 성경을 '창조-타락-구속'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 하나님의 형상과 장애 이미지에 담긴 사회적 자립

구약성경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한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결과로 장애가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함택, 2009).⁵⁾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2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징벌을 묘사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성적인 질병이 생길 것을 예언한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도덕적 결핍을 묘사하기 위하여 기능을 하지 못하는 눈과 귀에 대해서 언급한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와 날'을 설명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시각장애인)처럼 행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미가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도 도덕적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장애로 묘사한다. 이런 본문들로 인해 구약성경의 장애개념은 너무도 쉽게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인식으로 고착되었다. 즉, 장애를 신앙적·도덕적 결핍에 따른 징벌의 결과로 보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장애를 바라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 이미지들⁶⁾은 장애인들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로부터 나왔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며,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한다. 성경에는 실제로 장애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 이미지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놀라운 사실은 장애인과 장애 이미지와 관련된 성경 전반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장애인은 죄의 결과나 형벌로서 나타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삶의 권리와 영적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계운, 2002). 즉 성경에서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충족시켜나감으로 사회적 자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존재로 비유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유(메타포: metaphor)는 '하나님의 형상'과 장애인들을 통해 나타낸 '장애 이미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뜻한다(최순진, 2009).⁷⁾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각별한 관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갖게 된 것이다. 놀랍게도 구약성경은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5)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 개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속에 함택(2009)이 쓴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애해석에 관한 조망."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pp. 71-99)을 참조하길 바란다.
6)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장애인과 장애 이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계운(2002)이 쓴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서울: 한국밀알선교단출판부)를 참조하길 바란다.
7)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속에 최순진(2009)이 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른 인간 창조 의미의 고찰: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는가?."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pp. 51-69)를 참조하길 바란다.

따라서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모든 인간이 다양각색으로 다르다면, 또한 역으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다른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모두 동등하다. 각각 다르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장애는 단지 다를 뿐인 하나의 실체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장애'는 상이성을 내포하는 장애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장애라고 하는 이미지는 다양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장애는 어떤 것이 결여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결여된 것이 있어서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란 다른 형태의 또 하나의 삶이다. 그래서 장애는 보편적인 하나의 삶의 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장애가 다양한 사회적 현상 중의 하나로 이해되고, 여러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일을 의미한다. 아울러 장애로 이해되고 규정되는 현상, 바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하나님 형상임을 말한다.

다음으로 '장애 이미지'이다. 장애 이미지는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태도를 통해 나타난다.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장 7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를 가졌다는 외형적인 이유로 장애인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이사야 42장 3절)"라고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와도 같은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의 장애를 불행한 사건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실임을 보여주신다. 장애,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장애는 하나님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주요 구성요소인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과 그들의 장애 이미지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나라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과정임과 동시에 도구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이삭의 장애는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대변하는 장애 이미지가 된다. 에서와 야곱 중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야곱이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인간의 전통을 따라 에서에게 마음이 갔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쇠하여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하셨다. 물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는 야곱의 집념, 이를 도와 성취하려는 아내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뜨거운 모성애가 주효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이삭의 '시각장애'였다. 그는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청력과 촉각에만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청력과 촉각은 시각보다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지 않는다. 결국 시각장애를 가진 이삭은 불분명한 감각에 의지하여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이삭의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이삭의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다. 눈이 멀고 속임을 당하고 하는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나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이든 신체적이든, 물리적이든 간에 그 어떤 장애라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이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자립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날 것을 말해준다. 한편,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장애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 뼈를 맞아

다리를 절게 되는 지체장애인이 됨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다. 야곱은 이 지체장애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지체장애는 불행이거나 사고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축복의 증거였다. 여기에서 장애 이미지는 하나님 언약의 표지이며 축복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야곱이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 언약의 재확인인 된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애는 축복의 증표라 할 수 있다.

또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일시적인 장애됨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다시금 인정하게 하고, 일순간 교만했던 자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한센병이라는 장애를 경험했던 미리암 사건은 하나님의 종의 가족을 더욱 우애가 넘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미리암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장애 이미지는 장애는 불행한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준우, 2014). 이와 같이 불행이 오히려 축복으로 역전된 경우를 삼손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극명하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힘을 축복으로 받았던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두 눈이 뽑혀버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하지만 비록 죄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지라도, 이 장애가 삼손을 영원히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신약에 오면 재미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다. 바로 사가랴이다.⁸⁾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아들이 주어진다 증거로서 일시적으로 언어장애인이 되게 하셨다(강창욱·김해용·이준우, 2006).

미리암, 삼손과 마찬가지로 사가랴의 장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애 이미지는 이 세상의 모든 장애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건강하게 회복된 몸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길어야 70-80년의 장애, 이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극히 일시적인 장애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시간 관념에서 보면 사가랴가 경험했던 약 1년간의 장애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삼손 그리고 사가랴를 사용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장애인들의 바로 그 장애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은 경제적 활동 유무와 직업 생활로 주어지는 수입 정도, 직장에서의 지위 등과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선 안 된다. 성경은 장애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모든 일이 진정한 자립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경적 자립은 사회라는 현실세계의 공간에서 자신의 장애를 당당하게 드러내면서도 주어진 인생의 책무를 기쁘게 감당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스바냐 3장에는 장애인을 다른 소외된 집단과 함께 주류사회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공동체적 연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된 계층들이 개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먼저 경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약의 예언서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영적 회복과 더불어 장애인이 속한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영적 회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됨을 말하는 것으로 이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실현된다(김홍덕, 2010).

8) '사가랴'는 아비아 반열에 속한 계사장이었으며 세레 요한의 아버지였다. '사가랴'는 자신의 높은 나이와 아내 엘리사벳의 폐경기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천사가 예언한 세레 요한의 잉태를 의심하였다. 그 결과 사가랴는 한동안 언어장애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여호와와 구약의 도처에서(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35장 5-6절)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애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 사라지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느냐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징계가 하나님의 회복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어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받는 징계가 언약에 계약된 징계 조건을 만족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계획 속에서 영원한 언약이 계속된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징계를 대신 받고 고난을 받도록 하는 고육지책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이사야 53장 2-5절).

메시아의 고난은 개인적·신체적·사회적·영적·심리적·의학적 모든 부분에 걸친 장애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는 메시아가 그런 모든 분야의 장애를 회복시키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나라 공동체의 치유를 위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속죄양으로서의 희생이기도 하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과정 역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도 언약에 충실한 행위이며 언약을 갱신하기까지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징계를 받아 생긴 장애의 흔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흔적이 될 것임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다(이사야 19장 22절).

단언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고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다. 이사야 57장 15절부터 19절 역시 회복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다. 고치겠다는 결심 하에서 징계를 결심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이사야 57장 15-19절).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1장 14절부터 17절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갱신하는 과정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신다는 자신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셨다. 바로 장애의 제거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함께 영적 회복이 온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언약파기에 대한 징벌로 받았던 장애를 하나님께서 제거 또는 치유해 주시므로써 이스라엘은 회복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준다(스바냐 3장 15, 19절; 이사야 29장 18-19절, 35장 5-6절).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회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면 비록 중증의 장애를 갖고 24시간 누워 지내야 하는 장애인일지라도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며 패역한 이 세대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중증장애인은 중보의 기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며 그는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사야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으로서 시온에 돌아오는 길에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음으로써 회복의 기쁨이 절정에 달할 것임을 예언한다(이사야 35장 5-6절).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장애인(눈 먼 사람,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들이 다스려야 할 땅도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되었다. 즉 광야, 사막, 메마른 땅과 같이 생산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총체적 장애를 말한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애는 신체적·물리적·자연적·사회적·영적 등 모든 차원의 장애를 포

함한다. 영적 장애는 이런 다차원의 장애를 유발한다. 이런 총체적 장애가 하나님의 회복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래 창조 당시의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35장의 주제이다(김홍덕, 2010). 결국 이사야 35장의 내용도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이 영적 장애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함을 유추하게 한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며 그 평안의 힘으로 사회적인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회복에 대해 비유적으로 비유된 장애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맹인의 눈’, ‘못 듣는 사람의 귀’, ‘저는 자’, ‘말 못하는 자의 혀’ 등이며 또 자연의 파괴된 상태를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파괴된 상태에서 희망의 노래가 들려온다. 바로 회복의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장애가 고침을 받고 자연환경도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신체의 기능 회복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난다(이사야 35장 3-8절). 즉, ‘시각의 회복-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청각의 회복-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신체적 회복-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언어의 회복-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신체적 회복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단초가 된다. 신체적 손상이 기능의 장애로 연결되고,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현대 사회에서 영적 회복을 통한 신체적·심리적 회복은 사회적 장애를 해결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광야에서 물이 솟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며(이사야 35장 6-7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사야 35장 1절)이라고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예표하기도 한다. 이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예고한 변화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은 메시아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임과 동시에 우주적인 회복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치유에 있다(김홍덕, 2010).

그럼에도 이런 총체적 치유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 개별적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농인의 귀를 듣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질서 회복을 포함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시겠다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포함한 예언서 전반에 나타나는 개인적 치유는 이스라엘 전체의 치유를 전제하고 있다(이사야 29장 17-19절, 35장 3-6절; 예레미야 31장 7-9절; 미가 4장 6-8절; 스바냐 3장 19-20절). 이렇게 개인적 치유와 공동체적 치유가 함께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3. 신약의 장애 이미지와 사회적 자립

신약의 시대에는 장애가 죄의 결과일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신약의 시대에는 장애의 치유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의 행적 속에 표본이 되어 나타난다(이준우, 2014).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도 죄를 짓는 사도들에 대해 예수님은 정죄보다는 용서의 미덕을 행하시며 형제의 잘못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리고에서 만난 맹(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소리 지르며 주여 우리를 붙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만져 주시니 그들이 보게 되었고(마태복음 20장 29-34절), 또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고 하셨다(누가복음 14장 13절).

신약의 장애 이미지와 장애 관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단호하게 “누구의 죄도 아니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선언하시고 그의 장애를 치유하신다. 장애에 대한 편견에 젖어있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옛 시각장애인의 예수에 대한 찬양에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요한복음 9장 34절).”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맹(시각장애)인이 되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3년 동안의 지상 활동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이사야 35장 5-6절; 61장 1-3절)하셨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고 소외계층에게 진정한 복음과 자유를 전하기 위해 보내신 자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셨다. 마가복음 2장(1-12절)에서는 지붕을 뜯어내고, 병상에 누운 채로 내려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지만 그의 병을 곧바로 치유해 주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의심 많은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으시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시어 그가 일어나 나가니 비로소 모든 이들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이 부분은 장애인선교의 본질이 육신의 장애에 대한 치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회복을 위한 죄로부터의 구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서는 시각장애인(맹인), 청각장애인(못 듣는 자), 지체장애인(저는 자) 등과 같은 장애인들에게 ‘돈 얼마를 자선하셨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고, 한결같이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선, 구제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시사해 준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애인들에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체계와의 관계 회복도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셨다. 당연히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자선과 구제는 그들을 정신적으로 나약하게 만들며 항구적인 무능력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장애인의 치료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장애인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선교의 방향을 사회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회적 자립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1) 열등함이 아닌 차이의 개념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있어서 장애는 죄의 결과로 인한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장애 치유의 이적이 의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 사함’을 의미한다기보다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의 불편함이 많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 치유를 통해 장애인의 전인적인 구원을 완결하려는데 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 ‘장애는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차이의 개념’이었고 장애인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동정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형제애와 실제적 평등’에 입각한 것이었다(이준우, 2014). 생활의 불편함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소외까지 감내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의 치유는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본질이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치유에 한정된다면 주님 사역의 본질적 의미인,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구현은 퇴색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향하신 장애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이웃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장애인이 단지 기독교의 구휼 대상으로만 인식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애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장애인은 영적·정신적·물질적·신체적으로 분명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구휼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선 안 된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분히 사회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비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소중한 일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진정한 자립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비나 환경, 신체적 한계를 ‘정상에 가깝도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 친구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를 선택함으로써 풍부한 상호의존성을 향유하는 ‘영성적이며 정신적인 자립’에 기초한 ‘당당한 사회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삶의 통제권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 자립인 것이다.

2)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의 충실한 적용을 지향하는 개념

구약시대에는 이 땅의 많은 민족과 나라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민족과 남녀노소, 빈부,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편 규범이 정립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장애인의 성격이 괴팍하게 보인다거나 겉보기에 혐오스럽다든가 지적능력(I.Q)이 낮다고 해서 장애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죄악이며 과거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소극적이며 자선적인 장애인 돕기 차원에서 장애인의 인격존중,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지내기에 합당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근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뚜렷하게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탁상공론이 아니라 가히 혁명적이었고 구약의 옛 계명을 보다 철저하게 만드신 것과 동시에 극복하신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장 18절).”는 옛 계명보다 더욱 철저하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 사랑은 정신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이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일서 3장 17-18절).”

또한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는 신명기 15장 10절보다 더 지키기 힘들다. 구약 율법은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명기 15장 8절)고 명령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한다. 빌려주는 것보다 그저 주는 것이 더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주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관련시설의 입주는 ‘자녀교육에 나쁘고 집값이 떨어지기에’ 안 된다는 주민의 격렬한 반대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나타남으로써 삶의 터전조차 이룰 수 없는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결혼, 취업, 복음전도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소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적 사고의 퇴락한 한 형태이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예수 자신께 한 일이라는 마태복음의 구절(25장 31-46절)과 형제의 약한 믿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죄라고 한 말씀(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을 장애인선교에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온당한 시각과 품행에 입각한 장애인선교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계명과 함께 모든 동료 이웃에 적용되어야 할 계명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완결될 수 있다. 장애인의 본질은 장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러는데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장애인을 향한 궁극적인 사역하심의 목적은 그들의 사회적 자립에 있다.

3)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성취하는 개념

돈과 명예와 자신의 정욕을 향해 달리는 이 세상에서 장애인의 현실적인 삶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경영과 노동 생산성의 극대화가 고용의 기준이 되는 노동시장의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교육·직업재활의 노력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빈약한 상태에 있으며, 목전의 손익 계산에 급급한 산업현장에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빈곤과 차별에 직면해 있고,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비장애인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살아가야 하는 부담스러운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심도 삶의 필요 앞에 내팽개쳐야 하고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제도 속에서 삶의 열정과 노력은 허무하게 꺾여 가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이준우, 2012).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은 유효하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한다.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둘 수 있게 하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에 합당한 제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쓰라린 현실을 외면한 채 저 세상에서 이루어질 달콤한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장애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함으로 그분을 경배하게 하고, 자기 비하로 인한 자기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건강한 비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계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교육적·경제적 권리로부터도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 내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도 복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웃으로서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익의 보장을 위해 솔선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차별이 극소화되도록 성의 있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성경적 관점에 입각해서 장애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소중한 지체로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단순히 자선이나 동정의 차원에서 연례적이고 자기만족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여타 사회적 차원보다 높은 관심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구약의 많은 율법이 폐하여져도 신명기 15장과 레위기 19장은 고린도후서 8장(12-13절)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그 주된 내용은 ‘이웃을 도울 때 아낌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영원히 고기를 먹지 못할지라도 형제를 실족케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빈곤-왜곡된 소득분배로 인한 풍요속의 빈곤-이 여타 사회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여 이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과연 그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비취질까를 걱정하는 것에서부터 한국교회의 솔직한 반성은 시작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고린도전서 12장(12-31절)은 하나의 완벽한 신앙공동체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보여준다. 참으로 깊은 감명을 주는 부분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뿐 아니라 허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 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더 약해 보이는 지체의 긴요함을, 아름답지 못한 지체의 아름다움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하며 한 지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깊이 느껴야 한다.

장애인은 결코 동정의 대상이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하는 무척이나 소중한 지체인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인선교는 장애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말과 행함 속에서 나타내야 할 것임은 물론 장애인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서로의 아픈 부분을 함께 아파하며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누려는 노력에서 완결될 수 있다.

III. 한국 장애인선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의미⁹⁾

1. 장애인선교의 시작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형성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과 빛이 전파되었다. 한국에 전파된 복음도 구령과 함께 새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게 되었다. 만민 형제사상에 토대를 둔 기독교 이념으로 무장한 초대 서양의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 개신교인들

9) “한국 장애인선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의미는 이준우(2014)가 쓴 『교회사회복지실천의 새 지평: 복지선교와 복지목회』와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30년사 발간추진위원회와 이준우(2016)가 함께 쓴 『한국의 장애인선교』를 재구성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교육적·복지적 접근을 하였다.

1) 전통 종교와 복음전파

사실 복음이 한국에 처음 전파될 당시 전통적인 종교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기독교가 기존의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전통 종교들을 대신하여 민중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복음이 갖는 사회·역사적인 변혁적 메시지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것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며 낡은 관습과 가치관을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복음은 단순히 서양문화를 소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 같은 전통적 종교들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관으로 역사와 민족의 삶에 희망을 제시했다. 인간의 평등, 남녀동등권, 교육의 혁신, 과학의 발달, 역사의식의 대전환,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변혁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장애인선교를 통한 장애인 교육과 복지사업의 시작은 기독교가 한국사회와 교회에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감리교 의료선교사로 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1894년 평양에 조선 최초의 맹아학교를 세웠는데 이는 한국 장애인선교와 특수교육의 효시이기도 하였다.

2) 선구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장애인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

초기 선교사들의 설교나 선교사역은 매우 건전하고 복음적이었다. 그들의 헌신이 담보된 장애인을 향한 교육과 복지사업 실천과 선교적인 삶의 모습, 이웃을 향한 헌신적 자세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바로 이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초창기 복음은 대()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이어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총독부령 제 77호로 제생원 규정을 발표하여 고아의 양육과 맹아자의 교육 및 정신병 환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1913년 4월에 부령 제 14조에 의해 종래의 양육부 외에 새로 맹아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맹아부는 초등교육 겸 직업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수업 연한을 맹과 3년, 농아과 5년, 맹숙성과 1년으로 하였다. 이때 맹인들에게는 침, 안마 위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생들에게는 침사, 구사, 안마사의 면허를 주어 침구, 안마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농아들에게는 목공과 수예 기능을 익히게 하였다.

제생원의 교사로 부임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박두성은 홀 여사가 개발한 4점으로 된 뉴욕식 점자인 한글 점역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923년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7명의 연구위원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을 반포하기에 이른다. 이 점자체계는 현재 우리나라 모든 점자 교과서나 서책에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자랑이다. 이어서 1941년에는 성경 점자 원판 제작을 완성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성서를 보급하고자 했던 박두성의 평생의 기도와 노력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1935년에는 이창호 목사에 의해 평양맹아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통학제와 기숙제를 병행한 특수학교였다. 기숙사에서는 날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946년 4월 19일 이영식 목사에 의해 광복 후 최초의 사립특수학교인 대구 맹아학교가 설립되었다. 대구맹아학교는 대구광역시 서성로 소재 중앙교회당에서 맹아동 2명, 농아동 10명으로 출발한 이래, 1959년에는 농학교인 대구영화학교와 맹학교인 대구광명학교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선교 초기에서 1950년대까지의 한국교회 장애인선교의 특징은 사회변혁적인 복음전도와 교회당을 내어 놓고, 자신의 재산을 바치기까지 장애인을 사랑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헌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적인 부흥과 그것을 통한 장애인의 심리사회 재활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선교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선교와 교육기관을 통한 특수교육과 복지사업이었던 것이다.

3) 장애인 사역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침체로

1960년대에 시동을 건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제부흥은 외원의 삭감 내지 중단에 초래하여 서양 선교사들과 해외 기독교 단체 등에 의존도가 높았던 장애인선교 사업을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는 1960년대에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독립된 신앙노선을 정립하는 과도기를 겪으면서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내부 문제에 사용해야만 하였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장애인선교 문제를 등한시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 교단과 교파분열은 많은 교회의 힘을 교리적 논쟁과 갈등에 허비하게끔 하였다. 한국교회가 소모적 활동으로 정작 힘써야 할 장애인선교에 미흡하기 시작할 즈음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문제에 대해 개입을 시작하였다. 바로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정부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에 전쟁 참여자와 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등을 실시 하였던 것이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일반 장애인을 시설 보호하던 외원기관들이 국가경제 성장과 한국교회의 부흥에 따라 점차 철수하게 되었다. 정부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이들 시설 운영을 담당하도록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1970년대에는 산업재해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났다.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여전히 민간부문과 외국의 원조에 의존했고, 장애정책은 단순 수용만 하는 형편으로 시설보호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196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특수학교는 10개인데, 이 중 6개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들 사학은 특수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최초의 사립 특수학교는 1964년에 설립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소아재활원 국민학교(현재 연세대학교 재활학교)이다. 1966년에는 역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대구 보건학교(지체장애아교육)와 대구 보명학교(지적장애아교육)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간 장애인선교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특수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은 거의 보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사학 주도의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 사업은 개교회 중심의 신앙노선을 지향하는 교회 풍토에 의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시설 설비를 비롯한 교육재정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열악한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1977년 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79년부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 사업은 국가에서 인건비 일체는 물론, 운영비 지원까지 받으면서 국가의 공공제도 속에서 운영되게 되었다. 장애인 교육과 복지, 재활 등과 같은 사업의 주도권이 국가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새 장을 여는 계기였다. 2003년에 발간된 전국특수교육요람에 의하면, 1977년에 51교였던 학교수가 2002년에는 136교로, 학습수는 617반에 2572반으로, 학생수 7,342명에서

23,795명으로, 교원수 756명에서 4,911명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사회적으로는 전문화되면서 복음전도라는 선교 정신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특수교육과 기독교 장애인 복지시설은 형식화된 예배와 종교 활동에 만족해야 했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복음적인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 재활이론과 임상활동 구축에는 전혀 힘을 쏟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 장애인 사역은 영적인 분야와 육체적이며 사회적 인 장애 분야로 이분되고, 결국 교회에는 장애인이 있는지 없든지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장애인 시설에는 나름대로 봉사하고 지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장애인선교단체의 출현과 장애인선교 운동

1970년대 말부터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가 제도화되었지만, 199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와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남아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지속되었던 장애인 입학 거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 장애인 차별과 한국교회의 침묵

1967년 부산중학교에 지원한 윤철 군이 학과시험에서는 만점을 받고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다. 1974년에는 예비고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5명의 시각장애 수험생이 대학입시원서 접수를 거절당했다. 1976년에는 30여명의 장애인이 서울대에 대거 낙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7년에는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에 지원한 청각장애인 박치곤, 영남대학교 약대에 지원한 장기석, 구본영 등이 각각 장애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 1978년에는 부산대학교 윤여진, 김호남 등 7명이 무더기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 등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되었지만 한국교회는 침묵하였다.

더욱이 지금 사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1987년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인천 사랑의 집’은 수용 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 시설을 물색,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곱 차례나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북구 백암동에 간신히 주민동의를 얻어 새집을 지었다. 같은 해 ‘신망애 재활원’은 청량리 1동에 부지 92평을 매입하고 4층 건물을 지어 임대료 수입으로 재활원을 운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근 주민들이 ‘장애인 수용소 짓는다, 집값이 떨어진다, 자녀교육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구청장실을 점거하는 등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건축허가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신망애 재활원은 부지를 처분하고 구리시 갈매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 ‘자립원’으로 내몰려야 했다.

기독교인에 의해 설립된 여러 시설들이 남비현상에 의해 고통 받았으나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들은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교회로부터도 소외되었다. 1986년 월간 <밀알보>에 기고한 어느 뇌성마비 장애인의 글은 이 당시 기독교 장애인의 현실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의 부모님은 손님이나 동생들 친구가 오면 나를 막 숨기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께 ‘왜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하냐’고 여쭙어보니까 어머니는, ‘뭐 그리 자랑이라고 보여주냐’고 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서 꼭 참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기도드렸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부모님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게 될 고통은 영원한 것이기에.”

이렇게 장애인선교가 교회의 필수 사역이 아닌 부가적이며 시혜적인 교회봉사 활동으로 고착화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면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양동춘(베데스다선교회, 1976년 설립), 변귀숙(광주실로암선교회, 1976년 설립), 이재서와 정형석(한국밀알선교단, 1979년 설립)과 같은 개척자들이 설립한 장애인선교 단체들의 사역이었다.

이들과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교회가 외면한 장애인선교의 틀을 다시 세워나갔다. 동시에 자신들과 함께했던 장애인 형제·자매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 뜨거운 소명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불태웠으며, 사회구조의 개선과 관심 없는 교회를 위한 계몽운동을 펼쳤다. 이와 같은 활동이야말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다. 1986년에는 양동춘(베데스다선교회), 김양원(신망애재활원), 정형석(한국밀알선교단 총무)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선교단체의 연합기구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가 발족되었다. 열악한 장애인선교를 선교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해서였다.

2) 발표회 행사와 수화, 점자, 봉사자 교육을 통한 장애인선교 구현

양동춘, 김양원, 정형석 등은 자신들이 설립한 선교단체를 통하여 장애인의 간증과 찬양,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발표회’ 형태의 행사를 기획하고 치러내었다. 1980년 10월 9일에 밀알선교단에서 했던 “밀알의 밤”, 1980년 11월 3일 광주실로암선교회의 “자선음악회”, 1981년 4월 16일 베데스다선교회의 “사랑의 잔치”가 그것이다. 또한 여가나 취미생활은커녕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던 장애인들에게 자연의 경험을 제공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캠프가 시도되었다. 1980년 8월 18~21일 한국밀알선교단의 “사랑의 캠프”, 1982년 8월 5~8일 베데스다선교회의 “장애인 여름캠프”, 1981년 7월 13일~16일 광주실로암선교회의 “전국장애인수련대회”가 그것이다. 특히 베데스다선교회의 캠프는 장애유형별(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정신지체, 청각장애)로 특화시켜 진행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캠프에서 보편화된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1980년 3월 한국밀알선교단의 “화요모임”, 1985년 10월 베데스다선교회의 “크리스찬 자원봉사 교실”, 1992년 2월 광주실로암선교회의 “목요정기모임” 등과 같은 정기모임을 시작했다. 또한 <밀알보>(1980년 3월 1일 창간), 회보 <베데스다>(현재 월간 더불어 사는 우리들, 1976년 6월 1일 창간), 월간 <실로암>(1977년 7월 1일 창간) 등과 같은 회지를 통해서 장애인선교의 당위성을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인식시켜나갔다.

뿐만 아니라, 한국밀알선교단(1982년 1월 ‘밀알교실’로 시작), 베데스다선교회(1984년 11월 ‘사랑의 교실’로

시작)는 수화와 점자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선교에 헌신할 봉사자와 사역자를 양성하였다. 실제로 2005년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선교 사역자들 중 상당수가 수화·점자 교실 출신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장애인선교단체의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장애인선교단체의 장애인선교 운동

장애인선교단체는 초기 선교정신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선교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장애인선교 운동이 장애인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장애인선교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장애인선교 운동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심는 일이며,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기에 부합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선교단체의 선교사역은 하나의 기독교 사회운동이었다. 이는 의도하는 방향을 향해 기존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생각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생각에 따라 행동하도록 각성시키며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선교단체의 선교사역은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회가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었다.

놀랍게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믿음이 달라졌다. 장애인과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진 후에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기대가 달라졌다. 기대가 달라지니 장애인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행동이 바뀌니 장애인의 능력이 달라졌다. 달라진 장애인의 능력은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였고,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였다.

한편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한국교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장애인을 향한 구체적인 사역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교회의 사역은 비장애인에게 집중되었고, 장애인을 향한 복음전도,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 실천 등과 같은 사역은 외면되었다. 그 때에 하나님은 장애인선교단체들을 일으키셨다. 이들의 사역은 선교운동으로 발전하였고, 한국교회 내에 장애인선교를 회복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3. 장애인선교단체연합 운동의 성과

한국 장애인선교단체의 연합 운동은 한국교회가 다시 장애인선교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수행하게끔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장애인의 가능성과 역량을 인식시켰으며, 나아가 장애인운동과 장애인인권 개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즉 한국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실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1) 1970년대~1980년대 장애인선교의 모습

1970년대 후반부터 하나둘씩 설립된 장애인선교단체들은 소외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방문 선교로부

터 출발되었다. 즉, 불우이웃돕기의 구체적 실천으로 주 1~2회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봉사활동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경험을 기반으로 선교단체를 설립했다. 당시만 해도 장애 용어조차 병신, 불구자 등으로 쓰이는 시기였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던 때였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 특별히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으면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란 말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후로 자연스럽게 '불우이웃선교' 혹은 '특수선교'에서 '장애인선교'란 용어로 바뀌었다. 용어의 변화와 동시에 장애인선교단체의 사역도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면모를 갖춰 갔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시설선교 사역에서 직업으로 종사하는 유급 사역자를 통한 이용시설 및 생활(수용)시설(현재의 거주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 사역을 하나둘씩 개발해 나갔다. 나아가 기존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자체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병행되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까지 많은 장애인선교단체들이 탄생하면서 사역의 기초를 다지는 왕성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장애인선교의 기반이 구축되는 때였다.

2) 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의 출범

1980년대 중반까지 탄생한 많은 장애인선교단체들이 자원봉사 선교단체, 장애인교회, 재활원 등의 형태로 열심히 사역했지만 몇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첫째, 장애인선교단체 설립자들의 대부분이 당시만 해도 목회와 장애인복지실천 사역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데에 따른 이론적·임상적 능력의 부족을 체감하고 있었다. 기독교의 사랑으로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이며 입히고 재우는 일까지는 신앙의 열정으로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영적·심리사회적·교육적·의료적 재활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를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이 시기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생존과 발전의 과제 앞에서 많은 모금활동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체계적인 모금전략 개발과 기금관리에 대한 노후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셋째,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들과 사회복지계로부터 이질적인 집단으로 비춰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와 교단으로부터도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된 데에 따른 소외감을 갖고 있었다.

이에 각 선교기관들은 서로 연합해서 정보교환과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86년 9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장애인 고용 문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전국 장애인선교의 구심체로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이후 연합 10년의 결정체로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로 법인화(1996년 6월 3일)되어 2016년 10월말 현재 전국 12개 지역연합회에 109개 회원단체가 소속되었다. 또한 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의 결성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안에 장애인운동위원회가 설치되게끔 하여 한국교회의 '장애인선교 몰이해와 무관심'을 문제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운동위원회가 함께 이뤄낸 '장애인 주일' 지키기는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본다. 장애인 주일은 장애인선교에 무관심한 교회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한 주일에 정해졌다. 이는 장애인을 생각하며 그들을 향한 교회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결단하는 날로써 1988년에 각 교단에 협조를 부탁하면서 시작되었다. 2016년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예수교성결교와 기독교성결교, 기독교장로회, 기독교침례회, 대한하나님의성회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교단에 서 장애인 주일을 지키고 있다. 장애인 주일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선교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선교과제로 부상하였다.

3) 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의 대사회적·대교회적 기여

이렇게 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가 결성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는 장애인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장애인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끔 하면서 ‘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연합회 내에서의 단체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은 효과적인 장애인 선교사역의 실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신학적 도그마인 보수, 진보의 선을 무리 없이 넘나들었고, 통합의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였다.

장애인선교단체의 연합은 분열된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교회의 대사회적 봉사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으로 나누어진 교파들을 하나로 묶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로 양극화되어 있던 한국교회의 분열상을 장애인선교라는 목적으로 하나 되게 하였다. 일반 교회와 각 교단이 신학적 색깔의 벽을 21세기 현재에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이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선교단체의 연합활동은 교회 내에서의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 장애인에 대한 복지적 접근과 장애인 영혼구원의 목회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해결 대안모색,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한국 교회의 통합 등을 이뤄 내는 기점이 되었다.

4) 구체적인 연합회 활동

1988년 6월 7일 프레스 센터에서 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는 ‘장애자 문제 대사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로 손봉호 교수, 이성재 변호사, 김종인 교수였으며 토론회 후에는 서울시청 정문까지 가두시위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한겨레신문 6월 9일자에 게재될 정도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성명서의 제목은 “장애자도 살고 싶습니다. 장애자도 살고 있습니다.”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장애자의 정확한 범위설정과 통계조사 촉구, 둘째, 장애자 고용촉진법의 조속한 입법 촉구, 셋째, 장애자 복지기관의 투명한 운영 촉구, 넷째, 전시 위주의 장애자 올림픽 행사 지양 촉구, 다섯째, 장애자의 기본 인권 보장 촉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연합된 장애인선교단체들이 선교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장애인 인식계몽을 했던 소중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또한 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의 장애자 문제 대사회 토론회는 이후 전개될 한국의 장애인 운동을 성숙시키는 데에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토론회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부와 사회에 천명한 형태의 운동방식은 이전의 장애인의 보호와 개인적 구제, 문제화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부모집단이 청원과 단순시위를 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개선시켰다.

즉,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법률 개정 등을 위한 단체 간 및 개인과 단체 간 연대와 연합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부모집단이 힘을 합쳐 압력시위와 법적 진술(대안제시)을 동시에 수행하는 획기적

인 운동방식으로 진화하였다. 마침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실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장애인 운동이 실현된 것이다.

장애인선교단체의 연합활동은 대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88년 12월 8일 남서울교회(당시 담임목사 홍정길)에서 개최하였던 ‘장애자 문제 대교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선교의 당위성과 현황(양동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손봉호), 교회의 장애인선교의 방향(박종삼), 교회의 재정 구조는 거듭나야 한다(전택부)’와 같은 발제를 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장애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88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과 함께 ‘장애자 올림픽 선교대회’를 함으로써 장애인도 선교의 대상임을 한국교회에 알렸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장애인 임의단체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연구논문 자료집을 발간하여 한국사회와 교회에 장애인 문제 해결과 선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로교 고신측 제 37회 총회에서는 부당한 장애인 사역자 목사 안수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교회와 교단을 향한 장애인 차별과 편견 해소 노력을 경주하였다. 나아가 연합운동은 내실 있는 장애인선교를 위한 자체 정화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장애인선교단체 및 장애인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긴다는 비판에 대해 선교단체 스스로 소속 기관들을 정화해 가는 연합운동을 펼친 것이다.

4. 일반교회를 통한 장애인선교의 유형

1980년대 후반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여러 장애인선교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 교회를 선교단체와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설혹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선교단체 자체가 교회의 기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이는 한국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사역으로 장애인선교를 수행해 내지 못함으로 발생한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선교단체들의 열정적인 장애인선교 실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장애인선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동시에 여러 단체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연대하여 이뤄낸 장애인선교단체연합 운동의 성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장애인선교단체들의 사역들로 인해 선교 초창기 때의 장애인선교에 대한 사명을 실제적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도 낯선 용어였으며, 교회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하지만 88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그리고 장애인선교단체의 활동과 연합운동 등을 통해 교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되었다.

1) 장애인선교에 대한 자각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지역교회를 방문하거나 함께 예배하고 설교할 때에 사용하게끔 했던 지침 자료와 한국밀알선교단 설교자료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입장 (중략)”

첫째, 한국교회는 장애인선교를 교회 본연의 사명으로 인정하라!

세계선교나 농·어촌 선교는 막중한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쏟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를 인정해 주고 새롭게 그 뒤를 이을 헌신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선교에 관심을 쏟고 재정을 투자하고 전력을 쏟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선교도 속히 교회 본연의 사명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둘째, 장애인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인정하라!

교회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사역이나 선교에 헌신하는 교역자나 평신도들의 사역이나 봉사활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선교에 헌신하는 교역자나 특수선교를 감당하는 교역자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다른 교역자들은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교역자들을 동등시하기보다는 백안시하는 경향이며, 또한 장애인문제를 놓고 교역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협조하기보다는 기껏해야 고압적인 자세로 후원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셋째, 교회 내에 장애인을 받아들일 자세와 여건을 마련하라!

(중략) 이로 인해 장애인선교를 막는 결과가 되고 있다. 장애인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하는 특별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중략) 교회의 이러한 인식의 장벽과 함께 시설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교회에 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인식과 여건의 부족은 교회가 장애인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교회의 인식전환과 여건변화가 없이는 결코 교회의 장애인선교가 기대될 수 없으며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 1990).”

“1. 장애인 이 땅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중략) 그들의 복음화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최고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장애인들이 미전도 종족과 같다는 말은 그들의 복음화율의 극히 적음과 장애인들이 자생적인 교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교회와의 접촉점을 잃어버린 장애인들은 그들만의 교회를 힘들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나 장애인 이해에서나 어느 것 하나 준비되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중략) 이들을 위한 선교적 접근은 패역한 이 세대를 향한 매우 시급한 요청입니다.

2. 장애인 선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속에 나타난 복음서의 첫 번째 사건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장애인과 소외된 과부나 고아들을 위하여 열린 교회였습니다. (중략)

3. 장애인선교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복음선교입니다. 위대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빛나는 열매들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세기를 넘긴 우리 교회는 세계교회에 큰 실망을 던졌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4. 장애인 선교는 교회부흥의 매우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장애인선교는 투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발입니다. (중략)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적·육적 복지를 이루어야 합니다(한국밀알선교단, 1991).”

이와 같은 적극적인 계몽의 결과로 198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 내에서 장애인선교라는 말이 점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농촌선교, 도시빈민선교, 불우청소년선교 등과 같은 특수선교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장애인선교는 어느 새 교회의 필수적인 선교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가게 되었다.

2) 한국교회 장애인선교의 유형

1992년에 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에서 발간한 ‘한국 장애인선교기관 편람’에 의하면 일반교회에서 농아부를 두고 있는 곳이 16교회, 일반교회에서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주일학교를 개설한 교회가 12개소, 장애인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20개소, 장애인선교와 관련된 단체를 지원하는 교회 총 수는 336개였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 교회 내에 장애인부서를 둔 교회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영역이 40여 교회, 농아부가 30여 교회,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 영역이 20여 교회, 장애인선교단체를 지원하는 교회는 2,000여 교회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9월 현재 대략 7만 여개로 추정되는 한국교회 내에 설치된 장애인 사역부서로는 발달장애인 영역이 103개 부서,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정신장애 등을 포함하는 영역이 19개 부서, 농아(청각장애인)인 영역이 26개 부서 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특수교회로 구분되는 장애인교회가 153개소, 시각장애인교회가 57개소, 농아인교회가 97개소 등으로 추정된다.

선교단체에서부터 시작된 장애인선교가 일반교회 내로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의 장애인선교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첫째, 교회 내에 장애인부서를 두어서 선교를 하는 유형이다. 지적장애인부(발표자 주: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사랑부’, ‘소망부’, ‘밀알부’ 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음), 농아부(‘에바다부’로 명명된 교회도 있음), 지체장애인부, 시각장애인부 등 장애유형별 부서를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우에는 일단 장애인교회보다는 통합화라는 측면에서, 함께 하는 교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회마저도 나뉘어서 비장애인이 다니는 일반교회와 장애인들과 그 가족만이 다니는 장애인교회로 갈라지는 모습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역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믿고, 한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반교회 내에 장애인 부서가 설립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 유형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통합은 아니었다. 그것은 각 부서별 예배를 따로 드림에 따라서 교회 내의 장애인부서도 그 부서만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부서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공동체, 한 지체라는 인식을 가지기 어려웠으며 여전히 도움을 받는 시혜적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부서를 평가한다면,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비장애인 교인들은 일반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장애인 교인들은 교회의 주변인으로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비장애인 교인은 돕는 사람, 장애인 교인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둘째, 장애인선교단체나 장애인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었다. 장애인선교단체나 장애인교회는 분명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 친지들로만 구성된다. 따라서 장애인들만의 교회로 남게 되어 그 결과로 교회의 소규모화 현상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많은 장애인교회는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질 낮은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적인 장애인선교와 재활, 사회복지 서비스는 시도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선교단체와 장애인교회는 조금씩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게 되었으며 독자적인 자체 시설을 건립하는 장애인선교단체와 장애인교회가 생겼다. 밀알선교단, 신망애선교회, 베데스다선교회 등 여러 선교단체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사역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모든 일이 뜻있는 여러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셋째, 장애인 공동체의 운영이다. 즉,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그 모여 사는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 공동체는 그것을 모체로 장애인교회가 출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선교단체나 장애인교회가 운영했던 장애인 공동체는 갈 곳 없는 장애인들에게 자고 먹을 수 있는 곳을 해결해 주고 때로는 일자리도 마련해 줌으로써 자활의 터전이 되기도 했지만, 전문적인 교육이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은 이룩하지 못하였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만족해야 했으며, 전적으로 후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교회가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태거나 힘 있게 자부담으로 장애인 공동체를 지원하거나 직접 설립하게 되면서 장애인선교 활성화를 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5. 새로운 장애인선교의 성공과 정착

일반교회를 통해 장애인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두 가지 담론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장애인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다음으로는 ‘어떻게?’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다.

1) 새로운 장애인선교 모델의 성공과 보급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선교는 장애인복지와 연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분명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장애인선교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과 20여 년 전이었음에도 그 때는 선교와 복지가 통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파악된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되었던 월간 밀알보, 베데스다선교회와 희망선교회 등의 회보 등 대략 20여 종의 선교단체와 교회가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선교를 위한 도구로 복지가 활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남서울은혜교회, 사랑의교회, 인천연수제일교회 등 몇몇 대표적인 교회의 선교와 복지가 통합된 장애인선교 모형이 대성공을 거두고, 선교와 복지가 이원론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라는 장애인선교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와 재활을 활용한 장애인선교가 각광받게 되었다.

더욱이 남서울은혜교회는 밀알선교회를 모태로 하여 탄생한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힘을 모아 1997년에 밀알학

교를 설립하고, 평일에는 특수학교이며 주일에는 학교 공간을 활용한 교회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실현하였다. 장애인선교단체인 밀알선교회가 수많은 교회와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지원에 힘입어 사회복지법인을 만든 것 자체가 1990년대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장애인교회가 아닌 일반교회가 장애인선교단체와 손잡고, 그것도 장애인선교를 교회의 주요 목회사역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은 교계와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장애인부서에서 출발한 장애인선교를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운영, 장애인선교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실제적인 선교자료와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소 설치 등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일반교회 내의 장애인선교의 질적 부흥을 실현하는 데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인천연수제일교회는 아예 장애인 부서를 없애 버리고 장애교인과 비장애교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통합 목회를 실천함으로써 장애인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 장애인 부서를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천명해 왔던 교회적 사명을 실천해 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은 몇몇 교회들의 장애인선교는 ‘선교인가? 복지인가?’라는 담론을 장애인선교에 격정적인 화두로 확대하였으며, 그런 과정 속에서 장애인선교는 복지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욱 강하게 이끌어 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선교 자체에는 복지적 성격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선교단체들의 사회복지법인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동시에 사역자들의 사회복지학 전공 열풍이 불어 닥쳤다. 밀알선교회, 희망선교회, 베데스다선교회 등을 비롯하여 30여개 장애인선교단체와 장애인부서를 설치한 교회들이 1997년 이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화를 하였으며, 불과 20여 년 사이에 500여 명의 사역자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선교 경향

1990년대 후반부터 2016년 현재의 우리나라 장애인선교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예배가 정착되고 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2016년 현재 대략 6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이 와도 무방한 심리적인 통합만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교회의 모든 공집회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교회들을 선별한 수치인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주보 및 점자 찬송가, 성경책을 준비해 놓고, 교회에 오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차량 지원을 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 및 자막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 등을 말한다.

둘째, 기존 교회 교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역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교회 내에는 의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있다. 이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여 교회 내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들에 대한 선교사역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셋째,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장애인선교가 활성화되었다. 재가 장애인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

이 되었으며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넷째, 지역 장애인단체와 유관 장애인복지단체들과도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계를 통해 지역 내의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면서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예배당과 교육관의 활용이 늘어났다. 교회 공간을 평일에 개방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교육 및 재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학교법인 포함)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선교를 통합한 총체적인 사역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사업장, 그룹홈, 특수학교, 주간단기보호센터 등과 같은 교회 부설 장애인복지시설 중심의 사역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선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거나 통합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3) 장애인선교 실천으로 주어진 축복

한국교회의 새로운 장애인선교 사역의 결과로 인해 한국사회에 주어진 축복은 첫째,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장애인들을 돕고자 시작한 일들을 통하여 일반 교인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진지함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장애인과의 통합예배 운영과 장애인부서에서의 활동,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참여하거나 열악한 장애인선교단체 지원 및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을 많은 교인들이 체득하게 된 것이다.

둘째, 복음의 사각지대 속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힘 있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통해 복음을 접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자폐인과 지적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직업이 없던 장애인이 신앙의 힘으로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셋째, 구체적인 장애인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덤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적인 종교집단으로 다시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음지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참 교회로서 한국교회는 자리매김 되고 있다. 장애인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의 소외된 이웃과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야말로 성숙한 교회일 것이다.

IV. 결론

장애신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장애를 통해 펼쳐 가시는 하나님나라의 이미지들을 이해하는 성경적 관점이다. 이와 같은 장애신학에 기초하여 장애개념을 성경에서 다시금 조명하면 다음과 같은 성경적 장애 이해를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장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 또는 교훈적 가르침을 위한 꾸짖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장애는 징벌의 결과로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교훈을 받으려고 주어진 현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후에 제거되어야 할 소모품도 아니며 결국 존재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삶도 아닌 것이다.

둘째, 장애는 비장애인에게 은혜와 교훈을 주는 수단도 아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의로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 어려운 장애를 극복했기 때문에 존경심과 함께 닮아야 할 표상으로 생각될 대상도 아니다.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람일 뿐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도구로 한 감동에 목적을 두는 순간 비장애인에게 호감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더욱 무능력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남게 된다. 장애인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셋째, 장애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허락하신 신비한 능력을 타고난 존재도 아니다. 그런 능력을 타고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비장애인들도 갖지 못한 신비한 능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으로 보며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믿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고 성경적 장애개념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애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성경의 장애 이미지와 장애 이야기는 하나님나라를 완성해 가는 소중한 구성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나라에서 장애인은 항상 정상적이며 중요한 구성원으로 존재해 왔으며 장애가 신체적·정신적·영적 그 어느 차원에 있든지 간에 그 장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생명, 곧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wholeness)'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됨으로써 사회의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이 된다.

따라서 장애신학은 경제적 자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지향점을 영적 회복의 소중성으로 전환시킨다. 영적인 풍성함을 장애인이 소유하고 그 영성적인 힘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가 사회적 자립임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자립을 지향하는 활동이 하나님나라를 만들어 가는 핵심적인 사역이 장애인선교임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애인선교는 한국사회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전히 선교와 복지 개념의 혼돈과 이원론적 갈등,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장애인선교실천의 부족, 교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하게 통합하지 못하는 등과 같은 한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한국의 장애인선교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가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와 한국 장애인선교단체의 장애인선교는 한국의 장애인복지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장애인의 인권 문제 해결과 사회적 자립의 실현에도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선교단체 연합운동을 통한 장애인선교이다. 한국 장애인선교단체의 연합은 한국교회가 다시 장애인선교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수행하게끔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장애인의 가능성과 역량을 인식시켰으며, 나아가 장애인의 사

회적 자립과 장애인 운동 및 장애인 인권 개선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장애인선교단체들은 열악한 장애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갔다. 또한 대사회적·대교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계몽과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더욱이 일반교회를 통한 장애인선교 개척을 지원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장애인선교단체를 통한 한국의 장애인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애인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열정과 성실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나님나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아름다운 사역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가 하지 못했던 교단과 교파의 벽을 넘어서서 장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던 화해와 일치, 참된 연합의 사역을 이 땅에 실현하고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진정으로 갱신하고 그로 인한 대사회적 이미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바로 장애인신학적인 관점과 한국 장애인선교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도 이 세상의 원리에 굴복하지 않고 더 높은 초월적 기준으로 이 세상을 조명하면서 더 나은 세계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이준우, 2014). 장애인선교는 이러한 교회갱신이 가능하도록 복음의 정신을 회복시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선교는 목회자와 교인의 의식을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시켜서 장애인 선교를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장애인신학에 기초한 이념 운동에서 시작해서 실제적인 실천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는 작게는 장애인 이웃을 우리의 교회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일이지만 넓게는 한국교회가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게끔 하는 교회갱신을 위한 큰 발걸음인 것이다.

끝으로 향후 한국교회의 장애인선교적인 과제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장애인 선교를 위한 장애인신학적인 패러다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그것은 장애 이미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심도 있게 살피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울러 하나님나라 시각에서 폭넓은 장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로는 장애인신학의 정립과 함께 장애인선교 전문가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가령 기독교인 사회복지사들이 견고한 성경적 장애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선교학교’와 같은 교육 사업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의 장애인선교는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장애인복지기관, 특수교육기관 그리고 특히 장애인선교 단체들과 함께 사회통합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신학과 전통적인 교회신학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장애인선교의 기능과 사회의 장애인복지 기능과의 기능적 통합을 장애인의 영적·복지적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실현하는 교두보가 되게 할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가 앞으로 펼쳐야 할 장애인선교는 선교단체들, 교회들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계에서 장애인선교를 통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교회, 교단, 교회협의회, 장애인

선교단체, 기독교장애인복지단체 등 다원화 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선교의 여러 부분들을 어떻게 의미 있는 기능적인 통합체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V. 참고문헌

- 강창욱·김해용·이준우. 『장애인복지선교 개론』. 고양: 서현사, 2006.
- 김종인·우주형·이준우. 『장애인복지론』. 고양: 서현사, 2010.
- 김홍덕.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장애인신학』.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2010.
- 박보경. “선교적 해석학(Missional Hermeneutic)의 모색.” 『선교신학』 18: 77-108, 2008.
- 이계운.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서울: 한국밀알선교단출판부, 2002.
- 이준우. “하나님나라 운동과 장애인복지선교.” 『교회사회사업』 12: 7-50, 2010.
- 이준우. “장애인신학과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사업』 17: 41-70, 2011.
- 이준우.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파주: 나남, 2012.
- 이준우. 『교회사회복지실천의 새 지평: 복지선교와 복지목회』. 파주: 나남, 2014.
- 이준우·김성태. 『장애인 직업재활개론』. 고양: 서현사, 2010.
- 이준우·정지웅.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서울: 신정, 2014.
- 정승현. “선교의 성경연구 동향분석: 1980년대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미션네트워크』 1: 57-87, 2012.
- 최순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른 인간 창조 의미의 고찰: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는가?” 이재서 편,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2009.
-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30년사 발간 추진위원회·이준우. 『한국의 장애인선교』. 서울: 파란마음, 2016.
- 함택.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애해석에 관한 조망.” 이재서 편,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2009.
- Goheen, Michael. The Urgency of Reading the Bible as one Story. Theology Today 64: 469-483, 2008.
-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 :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Illinois / IVP Academic, 2006.
-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 :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정옥배·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0.

Strength in Weakness(SIW) 사역을 열어가며...

조병성 단장(한국밀알선교단)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앨리슨 래퍼’ 이야기를 접했다. 그녀는 기형적으로 짧은 다리와 양팔이 없는 해표지증(Phocomelia)이란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 구족 미술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뿐 아니라 신체 결함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킨 사진 작품들을 발표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도 출산한 아이를 키우며 세상에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으로 ‘수퍼펀드 인베스트먼트 그룹’으로부터 ‘세계여성성취상’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장애를 가지고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전 세계에 화제가 된 것이었다.

또한 몇 해 전에 별세하신 강영우 박사가 자신의 간증을 통해 교육의 10가지 법칙을 제시한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라는 책을 읽었다. 중학교 시절 공에 맞아 실명한 뒤 미국에 가서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된 후 미 부시 대통령의 정부의 교육부 차관보인 장애인 정책 보좌가 되기까지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그가 성공한 후 젊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격려의 말 중에 “비교 경쟁하지 말고, 인생의 선명한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앞만 보고 정진하십시오. 절대평가로 인생을 살다보면, 상대평가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도전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록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있는 비전과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한국밀알선교단 사역은 복지시설 중심의 사역이 아닌 재가 장애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밀알선교단 선교사역의 고민은 예수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적 영역에서의 수혜를 통해 작업장이나 직업재활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것에 비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신앙과 선교사역의 동참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¹⁰⁾ 요한복음 6장 29절, 9장 3절을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장애인선교 현장에서도 크게 부각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고민 끝에 우리는 SIW(Strength in Weakness)라는 ‘장애인들을 선교 중심에 서게 하자’는 새로운 방식의 선교사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교사역이 비장애인 중심의 선교사역으로 준비되어지다 보니 장애인들은 항상 선교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한다 할지라도 전문적인 선교훈련기관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훈련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밀알 안에 주신 비전과 소망은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게 하자!’라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주신 사역이 바로 전략적인 중보기도 사역이다. 새롭게 열어가는 ‘선교적 중보기도사역’의 중심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세우는 SIW(Strength in Weakness)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당부가 나온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인들에게 바울사도는 개인적인 기도생활 뿐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 하지만 그에게는 성도들의 전략적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SIW선교적 중보기도 사역은 이러한 마음과 원리가 하나님 나라 선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임 알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선교의 문)을 여시도록 간청하는 사역이다. 어떠한 형태의 선교라 할지라도 참된 선교의 밑거름에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 사역을 보다 전략적으로 하고자 한다.

2005년부터 SIW중보기도사역을 함께 해온 강OO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전략적인 중보기도 사역은 예민한 감각과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여성들의 직관력이나 어린 아이들의 순수성 등이 기도사역에 활용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면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장애인 기도사역자들은 어쩌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 보다 더 예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과 신체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누구보다도 더 예민한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기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 순수하게 반응하는 순수성이 결합

10) 요한복음 6장 29절, 9장 3절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에 그 어떠한 사람들 보다 더 세밀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들의 중요한 강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SIW선교적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장애인 중심의 중보기도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나 하라는 식의 평가절하 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선교 사역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그 무엇이 있겠는가! 어쩌면 그동안 장애인들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핵심에 있기보다 주변에 있었다. 그리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살피 주었고 격려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핵심에 서서 오히려 기도로 사역의 문을 열고 새로운 방식의 선교를 개척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게 하시며 가장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신다. 기도하면 그 다음을 알게 되고,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는 장애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보면 복지 차원에서 그들을 가장 먼저 앉힌다. 그들을 무시하면 하등한 민족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국제적인 분위기다. 미전도 지역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여전히 문을 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에 장애인 지체와 함께, 그들을 선교의 주축로 세워 나아가면 닫혀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릴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29)”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여겨지는 우리 장애인들의 선교적 삶을 통해 오히려 강함과 완전함이라는 틀 속에 머물러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동역되어 지기를 소망한다.

특수기도부대! 'SIW'

이석희 간사(한국밀알선교단 SIW)

한 농부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농부는 그 진주를 다시 땅에 묻고, 집에 가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몽땅 매입합니다. 이유는 정당하게 그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참 지혜로운 이 농부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귀한 모임에 참석하러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 모임은 장애인들로 구성된 중보기도 팀인 SIW 모임입니다. 수백 번을 생각해두, 참 귀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모임이라고 자부하며,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리상 매주 참석 할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작 3시간의 모임을 하고 자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서울을 오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SIW는 귀한 진주와 같아 전혀 낭비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기에 저에게 있어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SIW(Strength In Weakness)는 한국밀알선교단의 자랑으로 '장애인들을 선교에 중심에 서게 하자'라는 비전 아래 2005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중보기도팀입니다.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선교단과 이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명 '특수기도부대!'입니다.

SIW의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우선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초에 선교와 기도에 달란트가 있는 소수의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2박3일 동안 선교학교가 열립니다. 그리고 선교학교를 참석한 장애인과 봉사자를 중심으로 가을에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자비량으로 약 일주일간 단기선교를 갑니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그 마음을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시는 마음을 묵상하며, 나눕니다.

SIW가 장애인에게 기도의 영역을 부여한 이유는 단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기에 '기도나 해라'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 중보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중보기도 사역의 요건은 예민한 감각과 순수성, 그리고 특히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이 필수요건입니다. 장애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보다 더 예민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교현장의 핵심사역인 전략적 중보기도 사역에 장애인 특유의 예민한 감각과 순수성이 영적전투의 도구로 활용이 되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특수부대의 특수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병기는 가장 마지막 타임에 나옵니다. SIW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가장 유용한 비밀병기입니다.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가 있게 하며, 병든 땅을 치유가 있게 하며,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게 하는 마지막 End time에 가장 유용한 비밀병기! SIW가 될 것입니다.

SIW 주제성구 :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7~29)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위한 평생과정설계

유수진 상임이사 (사회복지법인 성민¹¹⁾)

1.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위해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에 대한 강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현장 전문가라면 누구나 지향하고 있는 바이다. 자립과 권리옹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현 시점에서 자문해야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가 과연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주체자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장이나 외침이 아닌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가 현실화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서 마땅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삶의 모습과 비전을 그릴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원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무엇을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장애인의 자립은 ‘권리’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자립은 당사자가 자기결정과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과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과 선택에 따라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등에 따라 실현의 가능성을 가진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과정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사명에 ‘평생복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의 평생과정설계 실천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 지향인 동시에 성민의 사명달성과 관련되어 있다. 성민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2010년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민복지관은 조직관리와 사업전반을 평생과정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생과정설계는 학자가 아닌 현장 전문가들의 실천경험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추상적인 관점이나 이론이 아닌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위한 가치와 철학인 동시에 실천전략이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평생과정설계를 통해 장애인과 현장 전문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하고 있다.

11) 사회복지법인 성민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순복음노원교회가 모체인 법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순복음노원교회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이어받아 전문적·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되었음.

II. 평생과정설계¹²⁾

1. 평생과정설계 개요

1) 평생과정설계 개념 및 특징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며 질적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희망하는 삶의 모습이다. 평생과정설계는 바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계획이자 실천과정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지향점은 바로 자립과 권리옹호이다.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 PPP)는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삶의 포괄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평생과정설계는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생애주기의 어느 한 단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생과정설계는 현재부터 생애 모든 단계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다. 평생과정설계 영역은 평생계획(Permanency Planning)의 구성요소인 주거, 재정, 법적 설계(Romanotto, 2001; Smith & Tobin, 1990)보다 확장된 영역으로, 자기의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주거, 교육, 직업, 문화·여가, 보건·의료, 결혼, 소득·재정, 법 등 일상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설계를 포괄한다.

평생과정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원하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강점과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다. 평생과정설계는 계획과 실천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족과 장애인을 지지하는 옹호그룹,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자원, 관련 기관의 연계와 활용이 요구된다.

2) 평생과정설계 실천관점 및 실천원칙

평생과정설계는 인간중심계획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다. 인간중심계획의 관점은 정상화, 사회적 역할 가치, 자립생활, 강점관점, 사회적 모델이며(O'Brien & O'Brien, 2000; O'Brien & O'Brien, 2002), 이는 평생과정설계의 주요한 실천관점이 된다. 인간중심계획의 관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자기결정과 선택,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평생과정설계는 인간중심계획의 관점인 정상화, 사회적 역할 가치, 자립생활, 강점관점, 사회적 모델을 공유함과 동시에 당사자주의와 임파워먼트를 실천관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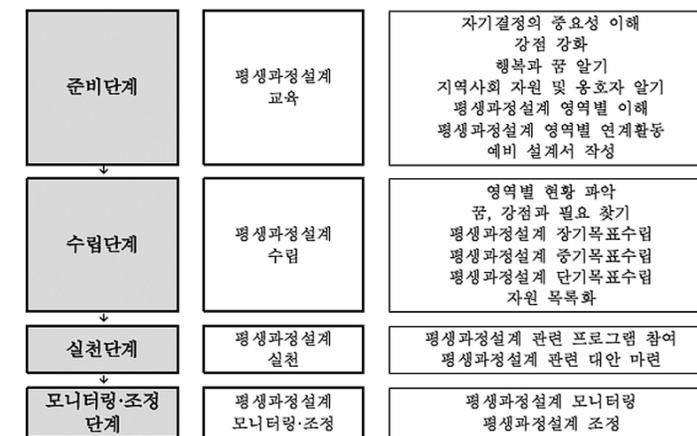
평생과정설계는 6가지 실천원칙을 가진다. 평생과정설계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기결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장애인은 각기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과 강점을 가진 존재이므로 개별화를 원칙으로 한다. 평생과정설계는

장애인과 가족, 친구, 옹호자, 전문가 등의 참여를 필요로 하므로 팀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이 원하는 미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성을 원칙으로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전 생애주기 동안 각각의 단계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수정되고 조정됨으로 유동성을 원칙으로 한다. 평생과정설계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의 관계형성과 참여, 자원 활용 등 지역사회 기반을 원칙으로 한다.

3) 평생과정설계 실행과정

평생과정설계는 장애인의 미래 비전과 꿈을 확인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장애인의 강점과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미래 계획과 준비, 실행과정이다. 따라서 단기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과정으로써 의미를 가지고 지속적인 단계를 거쳐 보완되고 수정된다. 평생과정설계는 준비단계, 수립단계, 실천단계 및 모니터링·조정단계의 과정을 거쳐 실행된다.

<그림 1> 평생과정설계 실행과정



평생과정설계 실행과정에서 장애인은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사 등 현장 전문가는 평생과정설계와 관련된 교육 지원, 매뉴얼 및 파일 제공, 평생과정설계에 기반 한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등 평생과정설계 전 과정에서 설계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의사, 변호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등 평생과정설계 8개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는 실행과정에서 장애인과 보호자가 원할 경우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다.

12) 평생과정설계에 관한 내용과 사례는 다음 문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성민사회복지연구소,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사회복지법인 성민, 2011).

성민사회복지연구소·성민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경기도: 양서원, 2013).

유수진,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준비프로그램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6).

2. 평생과정설계 적용사례

1)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는 평생과정설계를 준비하는 단계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아카데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현장 전문가를 위한 과정이 있다. 장애인 당사자 아카데미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아카데미로 구분된다.

〈표 1〉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구분	장애인 당사자 아카데미		보호자 아카데미	지원체계 아카데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대상	2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20세 이상 성인 지체장애인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규모	15명 내외	7명 내외	25명 내외	40명 내외
일정	년 2회 (상·하반기)	년 2회 (상·하반기)	년 2회 (상반기:성인기 자녀 하반기:아동, 청소년기 자녀)	연중(외부교육)
회기	23회기	20회기	기본과정: 12회기 심화과정: 5회기	1회 ~ 4회기
회기	영역별 교육과 연계활동	영역별 교육과 연계활동	기본과정: 교육 심화과정: 연계활동	총론 및 영역별 교육

2) 평생과정설계 지원회의

평생과정설계 지원회의는 아카데미 과정을 마친 장애인과 가족 중 평생과정설계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진행한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장애인과 가족 중 평생과정설계 지원팀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원팀은 발달장애인과 가족과 함께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약 2개월 간 '상담 ▶ 회의(사전회의, 통합회의, 컨퍼런스회의, 확정회의) ▶ 계획수립'의 단계로 진행된다.

평생과정설계 지원회의 전 과정은 장애인이 중심이 되며, 가족, 장애인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친구, 지역사회 옹호자가 함께 참여한다. 사전회의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경험과 현재의 모습을 지지하고 장애인이 원하는 꿈과 비전을 확인한다. 통합회의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의 강점과 역량을 인지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한다. 컨퍼런스회의와 확정회의에서는 평생과정설계 8개 영역별 생애주기를 반영한 중장기목표를 확정하고, 중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한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중장기목표를 3~5년 단위의 단기목표와 당해 연도 목표로 세분화하고, 당해 연도 영역별 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림 2〉 평생과정설계 지원사업단

단계		내용	
평생과정설계 상담	지원사업 설명하기	PPP 지원사업의 목적과 의미,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공유	
	동의서 작성하기	PPP 동의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	
	자기소개서	당사자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기 위해 PPP 자기소개서 작성	
▽			
평생과정설계 회의	사전회의	당사자 이해하기	PPP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당사자의 꿈과 삶에 대해 공유
		행복을 위한 '꿈'찾기	당사자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꿈)에 대해 경청하고 공유
		현황 체크하기	당사자와 보호자가 작성한 PPP 옥타곤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역별 현황 파악
	통합회의	힘(강점)과 필요찾기	당사자가 가진 힘(강점)을 찾아 당사자와 보호자를 지지하고 부족한 힘(강점)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을 찾도록 지원
		컨퍼런스회의	중장기목표 협의하기
확정회의	중장기목표 확인하기	장애인 당사자의 '힘(강점)과 필요'를 기반으로 영역별 중장기목표 확인	
	중장기목표 수립하기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지원체계가 함께 중장기 목표 수립	
	자원 목록화 하기	영역별 중장기목표에 따라 현재 이용하거나 이용 가능한 자원, 필요하지만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자원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목록화	
▽			
평생과정설계 계획수립	중기목표 확인하기	중기목표에 대한 가족 간 합의내용 확인	
	단기목표 수립하기	PPP 단기계획서를 활용하여 중기목표를 3~5년 정도의 영역별 단기목표로 세분화	
	해당 연도 계획수립하기	단기목표를 수립 후, 해당연도 내 실행할 영역별 계획 수립 및 순위 결정	
	자원 계획 하기	자원확보에 대한 계획	

3. 평생과정설계 실천을 위한 조직적 기반

평생과정설계는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평생과정설계에 관한 전략은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에서 활용한 방법이나 방안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민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평생과정설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성민복지관은 액션러닝을 활용한 학습조직을 2013년 구축하고 개인과 팀, 조직 차원의 학습을 활성화하

고 있다. 학습조직을 통해 성민복지관은 개인과 팀, 조직차원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평생과정설계를 조직운영과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과 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명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성민복지관은 경영전략팀을 포함한 7개 팀과 평생과정설계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그룹홈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습조직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팀 선정은복지관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혹은 소속부서와 관련성이 있거나 개인이 관심 갖고 있는 학습팀에 소속하도록 하였다. 학습팀에는 사회복지사 외 특수교사, 치료사, 특수체육교사, 직업재활사, 영양사, 전산관리자 등 복지관 내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한 학습팀당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민복지관에서는 개인학습과 팀학습이 업무시간 중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공식적인 조직학습 활동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관은 학습팀 활동을 위한 공간, 시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습팀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교육과 자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복지관 전체가 개인, 팀, 조직 차원의 학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을 공유하고, 복지관 구성원 스스로 혁신적인 대안과 전략을 모색하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III. 마무리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의 변화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이야기할 때 장애인의 역량강화만을 강조하지만 장애인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의 인식전환과 변화가 없다면 장애인은 자립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장 전문가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가로서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물음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과정설계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성민의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고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체적인 활동이 확대되면서 장애인과 가족과의 협력적·상호보완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평생과정설계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보호자가 장애 자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장애인과 보호자가 기관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등 장애인과 가족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현장 전문가와 기관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생과정설계는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옹호를 실현함과 동시에 ‘모든 이웃에게 평생복지 실천’이라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의 사명달성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로서 자립과 권리옹호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장애인의 동반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IV. 참고문헌

성민사회복지연구소. “평생과정설계(PPP, Permanency Process Plan)를 위한 기초연구”.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연구보고회 자료, 사회복지법인 성민, 2011.

성민사회복지연구소·성민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PPP)』. 경기도: 양서원, 2013.

유수진.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준비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6.

O'Brien, C. L., & O'Brien, J. The Origins of Person-Centered Planning: A Community of Practice Perspective, Lithonia, GA: Responsive Systems Associates, 2000.

O'Brien, J., & O'Brien, C. L. Implementing Person-Centered Planning: Voice of Experience, Volume II, Toronto, Ontario: Inclusion Press, 2002.

Romanotto, C. Understanding the Well-being of Older Maternal Caregivers of Adult-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w York University, Ph.D., 2001.

Smith, G. C., & Tobin, S. S. “Permanency Planning Among Older Parents of Adults with Lifelong Disabilit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 14(3-4), pp. 35-59, 1990.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교회의 역할-

김선이 센터장(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들어가는 말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이념이며 철학이고,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다. 즉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채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삶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후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이 자립생활이다. 자립생활이란 단순히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분리되어 왔던 장애인들이 자신의 박탈된 인간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은 일본을 거쳐 1990년 후반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2000년 최초로 자조모임형태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 이하 자립생활센터) 2개소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10개소의 센터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고, 2007년 10월 12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제4장 제53조, 제54조에서 자립생활의 지원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성문화하였고, 활동보조사업의 확대 등으로 자립생활센터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현재 전국에 약 227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인 동시에 장애인운동조직의 성격을 지니면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데 필요한 각종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활동보조서비스, 보장구의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의 자립생활센터실태조사(서해정 외, 2014)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센터의 조직운영, 인적관리, 사업, 평가 체계 등에서 구조적인 취약점들이 들어났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소비자 중심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센터에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단순히 사업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자립생활 철학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대한 가

시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데도 다소 소홀한 점도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관의 확대 속에서 과도기에 들어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성과 운동성에 기반한 권익옹호, 탈시설 지원, 당사자 자립지원에 위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이 복지관이나 시설의 정체성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분명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 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거론할 때 권익옹호와 운동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단순한 서비스전달체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하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장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줄 수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5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주류()사회에 통합되어 일상적인 경험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실화 시켜 주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능한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많은 자원이 필요하므로 동원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자원과 연결시켜주도록 한다. 넷째, 교회기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이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 등 시설과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에 합리적인 배분과 교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발표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으로서 그동안 장애인의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립생활센터가 과도기에 벗어나 그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후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장애인의 자립생활

산업사회에서 자립적인 것(independent)이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self-supporting)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자신감(self-reliant)의 개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자신의 일상적인 역할을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람인 경우에 의존적(dependent)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자연적이지 못함은 종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의존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립생활에서의 '자립(Independent)'이란 '혼자 살아가는 것(living alone)'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living together)'을 의미한다.

전자는 '독립'을, 후자는 '자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립(Independent)'을 독립이라 하지 않고 자립이라 칭함은 장애인 뿐 만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도 완전한 독립생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사회 속에서 사회와 더불어 상호교류와 상호협력, 상호의존, 상부상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영광(2000)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교류빈도가 많을수록 장애인의 자립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일생생활의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며 자립생활에 대한 성공과 실패까지도 자신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위험을 동반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창조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다. 장애인의 자립이란 기존의 신체적 자립이나 경제적인 자립의 의미에 국한된 의미로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한 결정과 관리하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행하여진다는 의미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사회 및 환경의 지원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자립의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일상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채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삶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자신, 공동체, 사회 환경 등에 대한 통제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을 완전한 사회참여자 이끌어낸다. 특히 사회 환경(social environment)은 자립생활 운동에 장애인들의 새로운 권리와 자격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 개발(relationship development)에 있으므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1. 자립생활센터의 법적근거 및 현황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사회기관으로써 자립생활센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¹³⁾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에 의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 주체는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각 시·도지사에게 의해서 선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I)지원센터이며, 2016년 기준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은 62개, 지자체 지원은 130개소이다. 동 기준 등록된 자립생활센터는 227개소이며, 장애인복지법 제54조 3항(신설 2015. 12. 29)에 국가와 지방자치

13) 로법령상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명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줄여서 「자립생활센터」로 쓰는 경향이 많아, 여기서는 후자의 표기법을 따르고자 한다.

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05년 자립생활센터 1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후 10년이 경과 되었으며, 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이 '자립생활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2015년 “자립생활지원모델 적용을 위한 컨설팅 및 매뉴얼 보급 사업”을 연구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 이용자 참여 등 영역별 서비스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하여 거주시설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2.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향

1) 자립생활의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 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의 직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대상

-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립생활 지원 목적

- 센터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야한다.

4) 개별 자립생활지원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해야 한다.
- 거주시설 등과 연계, 탈 시설 가능 장애인과 재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인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의 주요기능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격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앞장서는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삶에 대한 통제력 구현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및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기능 중 기본사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며, 선택사업은 센터 여건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표-1〉 자립생활센터 주요기능별 지원사업¹⁴⁾

주요 기능별 지원사업			주요사업(예시)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사업	권익옹호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 인권침해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장애인권 및 권리옹호교육 차별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및 구축 활동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장애인권익향상 네트워크 활동
	동료상담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제공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양성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 계획 수립 및 홍보 탈시설 전환 간담회 및 교육 탈시설 관련기관 협력
자립생활 체험홍(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 홍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보조서비스 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지원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문화 여가 활동 평생교육 및 문화교육 응급안전 서비스 자립지원 발굴(후원개발 등)

4.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관과 비슷하지 않다. 활동보조서비스만 하는 곳이 아닌 성과관리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며, 탈시설 및 탈재가 신규 이용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탈시설 및 탈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자기선택과 결정이 작동 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와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이나 거주시설도 권익옹호를 하지만 세종시나 시청에 가서 캠페인이나 투쟁을 하기란 쉽지 않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의 핵심은 권익옹호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을 간략화 하는 것이다. 권익옹호는 서비스와 운동성을 담는 것으로 그동안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힘을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 및 탈재가 후의 자립생활 전환을 뒷받침할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5년간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 총 4가지 기본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최근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바뀌며, 센터만의 핵심사업으로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었다. 이에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 54조 3항이 개정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센터의 사업을 하나의 장애인 전달체제로 인정하는 것이며, 정체성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역할로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10시간 교육과정 제시, 권익옹호 사업 세분화(개별, 시스템 권익옹호 활동)가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별 자립지원은 이전의 사례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수행되었던 사업이며, 이는 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 고용, 수급권 확보 등을 위해 집중사례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욕구 파악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자립생활센터만의 색에 맞춰 당사자가 주도해 지원하는 개인별 자립 지원으로 담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해 탈시설 계획 수립 및 홍보, 탈시설 전환 간담회 및 교육, 탈시설 관련기관 협력, 집단 동료상담, 자립생활가정 운영, 집단동료상담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에서 10시간 교육과정 제시가 추가 된 것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상담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립지원과정 그 자체가 장애동료 간의 지원 과정이며, 먼저 자립을 경험한 장애동료에 의해 자립의 욕구를 가진 장애동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상담가의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목표가 수립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기 때문에 동료상담가에 대한 교육 및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권익옹호 사업 세분화는 개별 권익옹호와 시스템 권익옹호 활동이 포함된다. 개별 권익옹호는 차별이나 학대 등에 노출되거나 자기결정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권익옹호를 말한다. 시스템 권익옹호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와 함께 하는 권익옹호 활동으로써 이동권, 교육권, 시설민주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을 말한다. 또한 권익옹호 활동은 당사자의 참여를 기본으로 지역사회의 보도환경, 공공환경, 공공기관의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한 조사 등 환경개선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접근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 장애인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킨다. 권익옹호는 단순히 장애인의 이해를 관철시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익옹호의 핵심은 사회, 특히 지역사회의 변화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살기를 위한 조건의 형성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서비스의 확장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하고 더불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실현의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의 동참을 강화해야 한다.

1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16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I) 지원사업 운영 설명회집』 (서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16). 82~83쪽.

이에 따라 자립생활센터는 역할 재정립을 위해 동료지지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주도의 지역사회 강화 활동과 자원개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을 발굴하며, 탈시설·전환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IV. 지역교회의 역할

1. 지역교회 참여의 필요성

유엔(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이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이 이전과 달리 새롭게 변화되고 개선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이후에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복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책적 개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복지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참여가 부족하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교회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회 지도자와 개교회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2000년 이후 가톨릭 및 불교의 성장에 반하여,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교회는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참여가 부족하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인식과 장애인 복지 정책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교회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장애인들이 시설과 집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지역교회의 역할

장애인 복지는 ‘시혜에서 권리로’, ‘재활(rehabilitation)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로,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리고 ‘시설에서 지역사회로’라는 커다란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존에 제공되었던 서비스 방식과 달리 시장논리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 사회구현이라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 복지의 중심적인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실천할 것인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와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의 강화 속에서 교회의 복음선포의 사명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단순히 선한 마음만 갖고 장애인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존엄성의 가치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새로운 장애인 복지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평등사상과 약자사랑을 강조해야 될 교회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장애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 동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장애인을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 또는 함께 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모습이 있다고 하겠다.

교회의 장애인 복지선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태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쉽게 판단하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인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성경에는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일꾼이며, 선교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을 구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당연히 함께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장애인 선교회 중심, 장애인 교회 등 격리된 형태로 장애인 복지선교가 추진되었다. 혹 어떤 교회는 공간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장애인이 가족이나 친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분리된 상태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곳이 많다. 장애인은 분리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현재 교회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교회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수정되지 않고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자리를 잡기 어렵고 또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

우선 목회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가지는 인식과 태도는 교회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역자와 교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를 위해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들을 발견하여 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2) 장애인 복지환경과 패러다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급변하는 장애인 복지환경과 패러다임에 대한 교회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기존에 교회 내에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의 태도와 관점은 이제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되었다. 장애인을 권리주체로서 인정하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적 접근에 교회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현재의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 있어야 할 입법 조치에 대하여서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과 생명의 정신이 모든 입법 과정과 법 집행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직·간접으로 대변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편의시설 설치

교회 내 장애인의 접근권이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회기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장애인이 자신의 힘으로 예배당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障碍物)을 경험하게 한다.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출입구, 복도, 예배당 등에 점자보도 블록이 없으며, 수화통역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나아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물론 예배당 내부가 대부분 장의자(長椅子)로 이루어져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태부족이다. 성경에서 존중하는 장애인 인권이 교회에서는 차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 차별의 현상이다. 따라서 교회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접근권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복지의 방향과 실천방법 모색

교회는 복음적 가치에 기반한 장애인 복지의 방향과 실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랑과 복음이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사랑과 일반적인 복음만 가지고는 오히려 장애인의 자립을 해칠 수 있기에 장애인 복지선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제반 재활서비스나 자립지원서비스, 또는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화 및 체계화 시키고 연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 재활서비스나 자립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들의 복지적 욕구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책개발에 반영하는 일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을 늘리도록 돕는 일 등도 교회의 역할이다. 이러한 실천 활동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실체이며 사회적 표현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다.

5) 장애인의 자립생활 현실화

교회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실화시켜 주는 데 초점이 두어야 한다.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자립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취업과 고용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성도들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기업에 취업을 알선 하거나 연결 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교회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장애 당사자를 중심으로 수화나 점자, 또는 의사소통훈련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자립하고 다른 장애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와 문화적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와 문화는 장애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 그리고 문화적 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6) 전문 인력의 양성

교회는 전문 인력으로 목회자로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나, 목회자는 아니지만 신앙인 중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을 채용하여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사역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 현재 교인으로서 신학 대학교 또는

일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졸업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을 교회가 적극 채용하여 교회의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활동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회의 장애인 복지사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교역자들을 일반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정규 신학 과정을 마친 장애인 교역자들을 일반교회에 참여시켜, 이들로 하여금 장애인 복지선교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현재 장애인 교역자들이 장애인 특수선교 분야에서만 사역하고 있고,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사역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 교역자들의 장점과 능력을 발견하여 본인이 겪은 경험으로 인해 성도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는 등,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사회에서는 일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법으로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를 선도하고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장애인 교역자들을 일반교회에서 채용하여 동역하기를 주저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교회가 장애인 교역자들을 일반교회의 장애인 복지선교 사역의 전담 사역자들로 적극 활용하여 그들과 함께 목회 동역의 파트너로 동참시킨다면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 교역자들이 소명과 희망을 가지고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교회의 장애인 복지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7) 교회자원의 활용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에 합리적인 배분과 교류를 위해 교회 공동모금회와 같은 자원은행(Bank-모금만 아니라 전문자원봉사자 Network 포함)이 요구된다. 교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은 열심이지만 교회의 여러 자원 즉 교회재정과 교회시설, 교회 안에 있는 전문 인력을 사회복지활동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회 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과 밖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교회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교회에는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복지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안에는 의료인, 법률 종사자 등의 전문 인력과 준 전문 인력, 그리고 봉사의 소양을 갖춘 다수의 인적자원이 어느 공동체보다 풍부하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장애인복지 선교현장으로 이끌어낼 때 진정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장애인 복지는 활성화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조직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는 무수한 조직체로 구성된 조직 공동체이다. 이 조직체가 생명을 봉사하는 소단위 조직체로 활성화 될 수 있다면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큰일을 이룰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시설의 자원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교회가 장애인 복지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 즉 교회시설을 그리스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생활’, ‘자립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교회지정의 확보와 함께 재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교회가 장애인복지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회복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책정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뜻이 있는 교인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구성하여 헌금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선교비용의 집행을 한다면 헌금을 한 교인들에게 보람을 줄 것이고 사회복지 선교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재정확보는 동기부여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재정은 투명하고도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여러 물적, 인적자원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연결시켜주는 배분과 교류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복지센터의 기능을 해야 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의 여러 단체나 조직망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장애인에게 물질적 원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력 원조의 형식으로 생명자원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들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고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복지활동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재원의 부담이나 경험부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시설, 교파를 초월하여 자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8) 지역사회의 장애인 기관 및 시설과의 협력

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기관 및 시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복지선교 실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장애인 기관과 시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고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복지활동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재원의 부담이나 경험부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 말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자기선택과 자기 결정에 의한 주도적인 삶을 완성하도록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개별지원과 권익옹호 시스템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이다. 기존 비장애인 사회복지사 체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주입식, 수동적 서비스 지원방식이 아닌 동료 장애인 전문 상담가가 장애로 인한 차별과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 중심, 인간중심의 주체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동료장애인, 옹호 시스템의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주요사업은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이동지원, 시설거주인 전환 지원, 자립생활 체험 홈 서비스 등의 개별 자립생활 지원과 권익옹호 등의 서비스 지원이며 주요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목표로 시설과 재가로부터 독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즉 자립생활센터는 단순히 장애인을 사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직접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당당한 사회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개별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이 소비자 중심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일부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단순히 사업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자립생활 철학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데도 그간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설치 운영되지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다.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당사자 중심, 동료지지 모델을 근거로 한 초창기의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립생활센터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 54조 3항이 개정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센터의 사업을 하나의 장애인 전달체계로 인정하는 것이며, 정체성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역할로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10시간 교육과정 제시, 권익옹호 사업 세분화(개별, 시스템 권익옹호 활동)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자립생활센터는 역할 재정립을 위해 동료지지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주도의 지역사회 강화 활동과 자원개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을 발굴하며, 탈시설·전환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의 핵심은 권익옹호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을 간략화 하는 것이다. 권익옹호는 서비스와 운동성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힘을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 및 탈재가 후의 자립생활 전환을 뒷받침할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의 구체적인 역할로서 장애인 복지환경과 패러다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교회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방향에 관심을 갖고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회의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함께 교회자원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 지역사회의 장애인 기관 및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교회는 장애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장애인들은 그저 불편한 존재로만 여겨왔다. 단지 적은 예산으로 일시적 방문으로 구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제 장애인 복지 선교는 장애인 선교단체나 장애인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활동에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무게 중심축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 복지의 흐름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더불어 정상적인 삶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통합과 참여를 지향해가고 있음을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정책 결정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김성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이윤화. 『자립생활패러다임과 역량강화실천』. 서울: 정립회관 직원교육자료집, 2000.
- 서정해 외.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16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I) 지원사업 운영 설명회집』. 서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16.

2. 학위논문

- 고관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국적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2012.
- 구근호.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 김용구. “장애인의 교회교육 접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 김은희. “지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1999.
- 김종만. “한국교회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3.
- 김혜림. “장애인의 사회관계망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 이경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후 장애인 사회통합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 이왕재. “교회의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한 지역공동체와의 소통과 교회활성화에 관한 연구.”
- 장기환. “장애인 복지 선교의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4.
- 조천권. “장애인 선교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그리스도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 최영광.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과정 탐색.”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0.

장애인의 사회적자립과 방안. 그 안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과제 - 발달장애인의 예술공동체를 꿈꾸는 '틈사이로' 를 중심으로

이정하 문화팀장(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 09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 서비스 시작 시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의 개념 '그 시기 누구나 겪는 삶의 과정'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래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고민했고 09년부터는 특히 학교를 막 졸업한 20~24살 청년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당시에는 은평구에 전공과가 없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학교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좌충우돌하는 실패도 접해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러한 고민과 실패의 여지없이 주간보호 같은 케어나 직업생활전선으로 곧 바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주간보호나 직업훈련 서비스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집단프로그램으로는 '청년'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립생활의 IPP¹⁵⁾를 도입하여 개별화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형 전환교육을 모티브로 사회적 자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사회와 장애를 가진 청년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동¹⁶⁾을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만족도와 필요도가 높았던 활동은 또

15) IPP는 장애인당사자,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지원자(조력자, 부모나 활동보조인 등)가 모여 장애인당사자의 선택을 통한 회의를 진행하며 장기(1년) 목표를 실행해 나갑니다. 각 단계 개별 프로그램 계획표(PP표)와 3개월의 단기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해 놓은 개별훈련계획표(ITP표)로 실행시켜 나가는데 있어 코디네이터나 조력자가 장애당사자의 선택을 재촉하거나 주도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중심'이라는 미션아래 '장애인이 살기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과 같은 네트워크 연대와 지역사회 중심가치를 둔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래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등 주변사람과 ‘관계’ 맺는 활동이었습니다. 사례 1) 이에 복지관은 처음 시작부터 이 용을 종결하는 순간까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맺는 활동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2.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당사자의 ‘자주’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책임**을 위한 인식 조성

지역사회중심 전환교육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에는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기 시작 하고 II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따라 자연스럽게 동일한 개념에서 발달장애인 영역에서도 ‘자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 모델이 그대로 발달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전 생애과정에서 장애당사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부모님 의 높은 권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른 활동보조인 중심 서비스 체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 등 여러 요인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자주’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립 여부로 사람답다거나 사람답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는 사람다움의 필수 요소입니다. 주는 대로 먹는 짐승이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자주하지 않으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 복지요결- 자립생활운동을 해 오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 친구와 스터디를 하던 중 ‘자립과 자주’에 대해 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자립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자주적인 삶에 대해 성찰해보 야야 한다는 생각에 서로 동의했습니다.

당사자주의의 핵심인 ‘자기대표성’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두고 스피치, 인권활동, 자치회의 등을 비롯한 모 든 활동에서 자신의 삶을 논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청년 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함에 있어 복지관의 인권중심, 당사자주체라는 미션을 중심에 둔 것과 같은 맥락입 니다.

당사자주의는 장애 문제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경험에 기 초하여 본인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결정’의 원칙을 제기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김용득, 김 미옥, 2007)

20주년 세미나를 진행하고 인권과 당사자주체를 고민해왔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자립의 어려움의 원인

은 무엇일까? 또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은평’이라는 지역사회가 장애인이 살만한 곳이라고 불리 우는 긍 정적인 면은 무엇일까?

그것은 ‘은평’이라는 지역사회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평은 다양한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그 다양한 시 민사회간의 연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살기좋은은평을만드는사람들’ ‘은평인권네트워크’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등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장애당사자의 개인의 몫으로 남겨졌던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 한 권력관계를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과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고, 그 결 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 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익섭, 2005).

우리는 발달장애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회환경을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학습했다. 더불어 최소한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현장과 마주하고 자신들의 생 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자주’를 실현하고자, 평생학습으로의 ‘권리’강화

예시 1. 당사자가 꿈꾸는 사회적 자립은, 누구와 어디에서 사는 것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

예시 2. 주1회 자치회의와 평생계획, 매일의 일상에서부터 생애평생 과정까지

예시 3. 스마트기기와 디자인교육, 정보접근성

예시 4. 대기 없는 지역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연계

3. 16년 틈사이로 도전기, 프로그램에서 **장애당사자예술공동체**로의 향후 방향과 과제

지역사회에 살고 참여한다는 뜻은 어디서 누구와 사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벌고; 자기 관심 분야의 진정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 가족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갖 고;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이해함이 따르는 선택

을 하고; 시민으로써의 책임을 수행하고, 세금을 내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 미국 지적/발달장애 협회(AAIDD)와 대학교 장애연구 센터 협회(AUCD)의 공동 견해 성명서 -

사는 곳은 일하는 곳과 멀리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하는 곳이 결정되면 사는 곳이 따라 가기 쉽습니다. 혹은 일장과 먼 곳을 출퇴근하다 보면 지역에서 생활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우리가 내다 본 것은 직업이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맞물린 ‘틈사이로’ 예술공동체는 ‘배우면서 일하는 예술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장애를 고려한 예술적인 일을 배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산적인 일에 기여했다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복지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누구나’입니다. 마땅히 권리로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술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틈사이로’에 참여하여 즐기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캘리그래피’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해 고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글이나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그래피’라는 예술활동을 하면서 다른 예술작가나 청년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함께 캘리그래피도 쓰고 전시회도 하면서 서로를 더욱 공감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아트상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함께 배우고 익히며 나온 결과물로 생긴 수익금은 100% 장애당사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새롭게 만들었고, 스스로 예술활동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캘리그래피 활동과정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은 이 청년들의 활동을 지지했으며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지원자,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은 전문가의 윤리의식을 점검할 때입니다. 많은 예술가들, 지역활동가들과 장애당사자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지원하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고수해야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비판, 격려, 때로는 칭찬을 하며 당사자보다 우위적인 입장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활동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과정 뿐 아니라 예산을 운용하는 범위까지 당사자의 결정권을 확대¹⁷⁾해나가야 합니다.

17)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쉬운 용어와 양식사용, AAC프로그램, 발달장애인지역자양성과정 등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전문과 제3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시작점으로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나 점차 장애당사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침과 내부 과정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블아트¹⁸⁾가 활발한 일본의 경우, 장애예술가의 저작권을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단체가 있어 지역의 소소한 문화공간에서도 장애예술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씨앗을 기점으로 장애당사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로거점(틈사이로에서 출발한 문화플랫폼)을 만나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장애가 있는 청년들의 활동이 그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의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권익 옹호 활동과의 접점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은평의 많은 청년들, 예술을 하는 청년들과의 교류도 지속하여 공동의 힘을 키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탈피하고 예술을 매개로 당사자가 이웃과 교류하고 협동할 수 있는 공동체 구조로 변화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은평에서의 사회적 자립생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웃과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참여자 뿐 아니라 복지관 모든 직원과 주민이 함께 애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사회복지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당사자의 선택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애써왔습니다. 은평구 교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장애인복지에 대해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복지라고 일컫는 봉사활동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교인(대부분 청소년) 중 한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하여 장애부서를 만들거나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계획은 있었으나 내부 교인의 우려로 실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은 각 교회를 찾아다니며 관심있는 봉사활동과 후원활동,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을 여쭙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틈사이로 청년들이 배우면서 즐겁게 일하고 자신만의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바랍니다.

18) 일본 에이블아트 : 기능성의 예술로 일컬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예술활동을 시간을 때우기 위한 여가활동이나 치료가 아니며 자신의 개성을 반영한 창조적 표현 활동으로 규정한다.

종합토론

정치웅 교수(배제대학교)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